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동 344-22 한광대학교병원 5층 1층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7년 8월 2일 수요일 (음 6월 11일) 제1861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바쁜 직장인들의 건강 우리가 지켜드립니다’

전주시가 바쁜 업무와 스트레스로 건강을 돌보지 못하는 직장인들과 시내버스 운전원, 교직원 등 직장인들의 건강을 돌보고 나섰다.

1일 전주시보건소에 따르면 대표적인 감정노동 일터인 콜센터 사무실과 장시간 운전으로 피로가 누적될 우려가 높은 시내버스 회사 사무실, 학교 등을 대상으로 통합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건강혁신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건강혁신 프로젝트는 평소 직장 생활과 자녀 양육 등 바쁜 일상으로 건강관리가 업무 중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어려운 30대~50대 경제활동 인구의 건강관리를 도와 건강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전주시보건소는 매주 한 차례씩 직장 사무실로 찾아가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주요 프로그램은 금연클리닉, 근력운동, 구강검진, 심뇌혈관질환, 영양·절주교육 등이며, 보건소 건강증진팀은 현재 매주 한차례씩 SK네트웍스오앤에스와 전주상업정보고를 찾아가 직장인과 교직원의 건강관리를 돕고 있다.

전주시, 감정노동자 시내버스 운전원 등 대상 통합 증진 프로그램 제공 매주 한차례씩 사무실 방문

청년 대상 무료 건강검진도 시 “건강정책 추진 노력”

이를 통해, 직장인들의 혈압과 혈당, 총콜레스테롤, 체중, 체지방률, 복부둘레 등을 감소시키는 대신, 근육량과 걷기실천을 향상, 근력운동 실천 등 건강생활실천율을 높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앞서, 보건소는 전주시내버스 회사 사무실과 농촌진흥청, 전주기상지침을 대상으로 건강혁신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이와 함께, 건강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전주상업정보고와 전북대학교 어린이병원 한누리병원학교 학

생들을 대상으로 통합 건강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러 학업과 취업 준비 등으로 건강을 돌보지 못하고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19세~만30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무료 청년 건강검진사업도 전개중이다.

이밖에, 보건소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과 방학 중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통합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인 ‘100세 행복경로당 건강관리사업’ 등을 통해 신생아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모든 시민들의 건강을 돌보고 있다.

전주시보건소 관계자는 “평소 바쁜 업무와 가정을 돌보느라 건강관리가 어려운 직장인들의 건강관리를 도와 건강한 일터와 건강한 가정, 건강한 도시를 만들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수요에 부합하는 건강관리 정책들을 발굴하고 추진해 모든 시민들이 건강하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꿈을 빚어라”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정혜선)는 1일 항교길 도자기갤러리에서 학교장 및 유관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위기(가능)청소년 23명을 대상으로 ‘직업체험프로그램: 꿈멘토와 꿈꾸다(이하 꿈멘토와 꿈꾸다)’를 운영했다. 사진은 참여한 청소년들이 도자기를 빚는 체험을 하고있는 모습. <관련기사 5면>

사드부터 증세까지... 민주당 입장 갈지자 행보

우원식 원내대표 “문 대통령 사드 임시배치 이해”... 사드특위 입장과 상치 당정협의 “자본소득세 부분 논의”... 추미애 대표 “추가 세원 논의, 때 아나”

고도고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와 증세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 오락가락하고 있다. 당내에서 이견이 나오면서 집권여당으로서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지난 7월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호’ 미사일 발사 대응 차원에서 잔여 사드의 4기 추가 배치 검토를 지시한 것과 관련, “한미 동맹 차원에서 사드의 임시적 배치를 했다는 정부의 결정을 이해한다”고 밝혔다.

이는 사드 배치 반대 입장을 보이던 기존 당 입장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앞서 민주당은 원내 기구였던 사드대책위를 당 기구인 사드대책특위로 확대하는 등 반(反)사드 기조를 이어왔다. 특히 사드특위는 지난 7월 4일 북한의 ICBM급 미사일 ‘화성-14형’ 발사 이후 소집한 회의에서 “사드

가 ICBM의 대책이 되지 않는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힌 바 있다. 사드가 ICBM 미사일 방어에 효용이 없다는 입장을 당 차원에서 견지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우 원내대표의 발언으로 ‘사드배치 무용론’이라는 당 입장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현재까지 특위 차원에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가운데 늦어도 다음주 말쯤 소집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호 사드특위 간사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왜 임시배치를 결정했는지 배경을 빨리 파악해야 한다는 게 위원들의 입장”이라며 “정상적인 정부에서 배경이 분명히 있을 것. 각자의 정보를 취합해서 그것을 토대로 사드특위 회의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증세 방안에 대해서도 이견을 표출한 바 있다.

지난 7월 27일 2017 세법개정 당정

협의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들은 당정협의에서 주식 거래·채권 등 금융 상품으로 얻은 차익인 자본 소득에 대한 증세 논의가 부분적으로 있었다고 시인했다. 박광문 민주당 제2정책위원장은 “어느 정도 자본소득을 강화할 것인지는 정부의 기획재정부에서 정교하게 검토해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전날 추미애 대표는 소득세와 법인세 외 세목 증세 논의와 관련해 분명히 선을 그었다. 추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사회적 공감대와 수용성이 중요하다. 나머지 세목과 세원 확대 문제는 지금 논의하는 게 맞지 않다”며 자본소득세 등의 증세 가능성을 사실상 부인했다. /뉴시스

매일 INDEX
4면 - 재량사업비 비리 검찰 수사

시로 임시 휴관 군산 금강철새조망대 ‘재개관’

휴관기간 동안 영상관·식물생태관 정비 등 완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임시 휴관에 들어갔던 군산 금강철새조망대가 1일부터 재개관했다.

군산시에 따르면 AI 위기경보가 ‘주의’ 단계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문을 열고 관람객을 맞이하기로 했다.

지난 6월2일 발생한 AI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가축 전염병 예방 강화 및 동물의 안전을 위해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휴관을 결정했다.

철새조망대는 야생조류 및 관람용

가금류 75종 500여 마리를 사육·전시하고 있어 AI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근무 태세 유지와 방역물품 지원을 통해 시설물 관리에 완벽히 추진해 왔다.

이후 7월15일 군산지역 AI 방역대 이동제한이 해제된 데 이어 최근(28일)에는 전국 AI 방역대 해제 및 위기경보가 하향 조정됐다.

금강철새조망대는 2개월여 휴관 기간에 영상관·식물생태관 정비와 전기·소방·엘리베이터 등 시설물 전반 안전점검, 조경시설 가지치기 및



제조작업을 완료했다. 한편 금강철새조망대는 지하 1층, 지상 11층 규모의 철새 전문 전시시설로 철새 및 금강을 실시간 관찰할 수 있도록 망원경 및 대형 PDP 등이 설치됐다. /군산=김관곤 기자

국립세종대학교 전주한옥마을 유네스코 음식향의도시

전주, 한눈에 반하다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